

# 영국의 고등교육과 주한영국문화원의 한-영 교육협력 사업

## British Council Korea and UK Higher Education

Ian Simm, Director British Council Korea  
이안 씨 | 주한영국문화원 원장



그림 1. 교육부 영국방문

The United Kingdom has a very long history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dating at least from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ity of Oxford in the 12th century. There are now hundred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Higher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each with its special strengths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higher education. The UK invests ?15 billion in higher education, and over the past 30 years has brought in a number of innovations in quality assurance, student support,

evaluation and funding. Recent changes in government structure have created the Department for Universities, Innovation and Skills which have given Higher Education a clearer voice within government.

12세기에 최고의 명문 옥스포드 대학을 설립한 영국의 고등교육은 오랜 역사적 전통과 더불어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숫자가 수백 개에 달하는 영국의 대학은 개별 대학이 가진 특수성과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등교육 투자액은 약 150억 파운드에 달하며, 과거 30년간 대학교육의 품질보증, 학생지원,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구조개혁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신임 고든 브라운 총리 취임 이후 이루어진 개각을 통해 초·중등교육과 별도로 대학교육을 관장하는 대학혁신기술 부 (DIUS : Department for Universities, Innovation and Skills)가 신설되면서 고등교육계는 정부에서 더욱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t the same time as government-initiated reforms,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mselves have introduced new ways of working to widen the experience available to their students. They have sought to widen the range of students they recruit, both from UK and overseas; they have introduced flexible learning arrangement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studying part time, or by distance or internet-based learning; and many have developed innovative course programmes, with modular structures, which allow students to tailor their degree to their job aspirations. All this demonstrates that UK universities, in fierce competition with each other for the best students, now treat their students as customers who deserve the best educational experience on offer.

정부 주도의 개혁과 더불어 대학 스스로도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의 입학률 장려하고 파트타임 및 원격강의 등 새로운 수업형태를 도입하였으며, 모듈 형식의 과정 구성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에 맞추어 수업 계획을 스스로 짤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오늘날 영국의 대학은 최고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들을 최고의 교육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K Universities are not only strong in teaching - many of them excel also in research. While UK research makes up 5% of the world's total, UK-sourced papers in international journals make up 12% of the citations - a generally recognised measure of research quality.



그림 2. 교육부 영국방문

영국에는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전 세계 연구개발 과제의 5%가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 학술지에서 인용 횟수의 12%를 영국의 논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영국 대학의 높은 연구개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자체 통계

At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levels, UK universities and colleges welcome students from overseas warmly, as they believe strongly that world-class education is, by definition, global in its scope, and a diversity of students is vital to challenge the institutions to keep up their innovative approaches.

또한 영국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이 되려면, 교육의 내용을 국제화 함과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존재함으로써 대학의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학사 및 석사 이상의 전 과정에 걸쳐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Many eminent Koreans have studied in the UK. Examples include Mr Sohn Hak-kyu, formerly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and now leader of the UNDP; Mr Hwang Young-key, former

Chairman of Woori Bank; “Dr Han Seung-soo, former Chairman of the UN General Assembly and now Secretary-general’s Ambassador on Climate Change;” Ms Kim Sung-joo, Chairperson of Sungjoo International; and Representative Park Jin, a senior member of the President-elect’s transition team. Most recently, all the three recipients of MOST’s 2007 Women Scientist of the Year title - Prof Kim Bitnaeri, Prof Sohn So-young and Dr Chung Hee-sun - are alumni of UK universities.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한승수 국무총리, 성주 인터내셔널 김성주 대표,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진 위원 등 한국의 정치인과 경제인 중에도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기술부 선정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2007년 수상자인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 연세대 손소영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희선 박사 모두가 영국 대학 출신인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British Council’s role in Higher Education is to promote policy-level dialogue between professionals in UK and Korea and to encourage better links and partnerships between Universities in our two countries. In October 2007, we organised a Korea-UK Institutional Partnership Building seminar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with over 150 participants from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many smaller events, such as seminars, visits and discussions, aimed at building better links. Last year, the UK’s Minister for Higher and Further Education, Mr Bill Rammell, brought a high level delegation to Korea to discuss ways of developing better understanding

and links between education professionals, and a group from MOEHRD went to UK to study higher education issues including admissions policy. We also operate across the East Asia region and are running a series of high level seminars on such subjects as student mobility and world-class universities, which attract senior representatives from Korea to participate. And every year in October, the UK Education Exhibition in Seoul brings representatives of more than 60 UK institutions to engage with Koreans, potential partners and students.

주한영국문화원은 한국과 영국 고등교육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교육정책관계자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개별대학 간 네트워킹과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는 국제교육자협회와 공동으로 양국 대학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150명 규모의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실무협의를 위한 소규모의 기관방문 및 주제별 세미나도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2007년 5월에는 영국 교육기술부(DfES) 빌 라멜 차관이 영국 우수대학 총장단 및 고등교육 관계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고등교육계의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답방으로 2007년 9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 담당 직원들이 대학입시 정책을 비롯



그림 3. 영국유학박람회



그림 4. 빌라멜 차관 한국방문

한 영국 고등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영국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교육 국제화, 학생 및 학점교류 등 고등교육계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영국과 동아시아 각국에 주재하는 영국문화원이 함께 개최하는 고등교육 전략 포럼에도 한국 고등교육계 인사들이 활발히 참석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주한영국문화원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영국유학박람회 참가를 위해 60개 이상의 영국 대학이 해마다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education colleagues in Korea can find out more about UK education by contacting us at [www.britishcouncil.or.kr](http://www.britishcouncil.or.kr), or through the Education UK website, [www.educationuk.or.kr](http://www.educationuk.or.kr).

영국의 고등교육 및 양국의 고등교육 협력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주한영국문화원 웹사이트 ([www.britishcouncil.or.kr](http://www.britishcouncil.or.kr)) 및 영국문화원이 운영하는 영국유학 안내 웹사이트([www.educationuk.or.kr](http://www.educationuk.or.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